

기고



강성호
광주교대 명예교수·철학박사

맑게 개인 여름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의 수를 세어 본 일이 있는가? 광대한 우주 안에서 차지하는 지구의 크기를 헤아려 본 적이 있는가? 이 세계 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왜소함을 느껴 본 일이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가? 사람은 왜 죽어야만 하며,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착한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간다는데, 어떻게 살아야 착한 사람이 되는 걸까? 과연 천국이나 지옥, 극락은 참으로 존재하는가?

누구나 한 번쯤은 뜬눈을 뜨고 봤음직한 이러한 궁금증 자체가 철학의 출발점이 된다. 왜냐하면 우주를 탐색하는 천문학, 세계를 연구하는 자연과학,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인간학, 인간의 실존적인 삶을 다루는 윤리학, 그리고 사후(死後)의 세계를 논하는 종교론 모두가 철학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고대에서는 철학이 곧 학문이고, 학문이 곧 철학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철학은 첫째, 인생 전체에 걸친 이념(理念)이 지혜라 할 수 있다.

“철학을 해서 돈이 나오는가, 밥이 나오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돈도 나오지 않고, 밥도 나

철학이란 무엇인가

오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이 밥만 먹고,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날 탈레스가 별을 관찰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걷다가 그만 웅덩이에 빠져 버렸다. 그러자 익살스럽고 똑똑한 트라키아의 한 허녀가 이렇게 그를 비웃었다. “자기 발밑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면서 하늘의 일을 알려고 하더니!”

탈레스처럼 실제로 철학자들의 서툰 행동은 놀랄 만하고 비현실적이며, 그래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철학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 연구하려고조차 하지 않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이 세계의 사초는 언제고 이 끝은 어디이며,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과연 무엇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탐구한다. 진리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며,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따지고 또 따진다.

여기에서 철학의 두 번째 의미가 나온다. 철학은 눈앞의 이해타산을 떠나 진리 그 자체를 사랑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순수한 지적(知的) 열정, 바로 그것이 철학이다. 비록 웅덩이에 빠지긴 했으나, 탈레스는 피라미드의 높이를 그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해 냈고, 일식(日蝕) 지구에서 보아 달이 태양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는 현상)을 정확하게 계산해 냈다. 또한 삼라만상의 근본 물질로서 ‘물’을 주장하기도 했다. 후대의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한 탈레스는 오늘날 ‘철학의 아버지’로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지만, 트라키아의

허녀에게는 이름이 없다. 그냥 ‘트라키아 지방의 허녀’일 뿐이다. 세상에 ‘이름’을 남겨서 뭐하나고 묻는 사람에게는 대답할 말이 없지만.

셋째, 철학은 모든 학문, 나아가 모든 삶의 궁극적 목적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파키스탄의 산골을 여행하던 사람이 진기한 광경을 보았다. 두 눈을 가리고 연자 뱃등을 돌리는 소 두 마리를 목도한 것이다. 그래서 주인에게 “저 불쌍한 짐승의 눈까지 가려야 할 필요가 있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주인이 대답하기를 “모르는 말씀입니다. 저 소는 지금 자기들이 먼 길을 간다 착각한 채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만약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라 하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모른 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돈, 명예, 권력, 쾌락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 그리고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참으로 인생은 허무하다”고 한탄한다.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의 작품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세제적인 작가 헤밍웨이는 평소 “인생에는 목적이 없다”고 중얼거리곤 했다. 그리고 끝내 업종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 오늘날의 문명 역시 맹목적인 돌진을 감행하고 있다. 과연 그 종착점은 어디일까? 인류의 진보와 번영, 평화와 안락, 건강과 장수일까? 아니면 증오와 분쟁, 전쟁과 대량 살상, 인간성 상실과 파괴일까? 학문의 몰가치성과 문명의 비인간화로 인하여 인류가 치환의 혼돈에 빠질 때, 과연 그 큰 방향을 제시할 학문은 무엇인가?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

필자는 전주교 광주대학교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서 부국장 책임을 맡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법원에서 직영하는 시설들이 있다. 가톨릭 정신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변방으로 밀려나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있다.

‘보련성’의 의미를 지닌 가톨릭 정신은 고스란히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의 정체성으로 연결되어 활동의 동력이 되고 있다.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의 정체성은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 훼손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근거와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지키려 했던 인간의 존엄성 회복이 바로 가톨릭 우리가 지향하는 정체성이다.

하느님 모상(Imago Dei)의 의미는 ‘나’는 곧 ‘나’이고 ‘나, 나’는 곧 ‘우리가’가 되어 차별을 자아내는 월등과 우월의 시각에서 벗어나 동등한 존재의 인식이다. 또한

전인(全人)적 존재

인간이 지닌 외적인 영역의 육체와 그 육체의 필요성에 국한되지 않고 영적이며 내적인 존재, 곧 정신적인 존재의 영역까지도 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다. 그래서 국가 사회복지와 가톨릭 사회복지지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호 보완적 역할의 당위성이 있다. 왜냐하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히 욕구를 채워 주는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전인적(육체, 영혼, 정신, 마음)으로 인간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존재를 전인(全人)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유는 육체적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전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전인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는 육체적이고 영적인 존재다. 그러나 우리의 소비적인 삶과 경쟁 의식은 내적이고 정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을 망각하게 한다. 우리의 본능은 소유하는 것에 익숙하고, 경쟁에서 지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한다. 그래서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즐거움만을 쫓아 급기야 쾌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니 정작 내면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소비와 경쟁으로 평가하여 우리의 가치를 계산하게 될 것이다. 내적인 존재이기도 한 우리의 관계성이 점점 사라져지는 이유이다. 우리 사회의 서열화가 그렇고, 차별과 폭력이

존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변화와 발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결과론자처럼 소비와 경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하여 살아남은 자만이 진정한 가치를 부여받게 되어 버린 세상이다. 이런 천박한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전인적 존재인 우리가 평가받을 때, 동등한 존재에 차별이 생기고, 동등이 아니라 우월과 하등이라는 기준으로 폭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떻게 얻은 승리인데 그 기쁨을 누리지 않고 숨기겠는가? 우리의 존재가 이토록 역설적인 존재인가? 갑자기 ‘인간을 수단화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는 임마누엘 칸트의 말이 떠오른다.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의 정체성은 인간 존재 그 자체로 사람으로 섬김을 받아야 하는 보편적이며 전인적인 존재를 지향하고 있다. 단순히 부족한 것을 채워 주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기록된 유지를 위해, 자기의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위해 목적 그 자체인 전인적인 존재 인간을 수단화한다면, 그런 자는 자기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신과 동등한 존재를 지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사람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또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짓밟는 모습은 결국 자기 존재도 또한 짓밟혀도 된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닐까?

기고



김호준
예술감독

올해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프린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 프린지 페스티벌의 모태는 매년 8월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열리는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Eдинburgh Festival Fringe)가 시초였다.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모인 1000여 개의 공연 단체가 200개에 달하는 공연장에서 1500개가 넘는 공연물을 선보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예술제다.

변두리·외곽이라는 뜻의 프린지 페스티벌은 1947년 에든버러 국제페스티벌에 초청 받지 못한 여덟 명의 예술가가 거리와 교회를 오가며 공연을 펼치면서 시작됐다. 1957년 페스티벌 프린지 협회(The Festival Fringe Society)가 결성되면서 독립적인 예술제로 발전했다. 이후 1970년대부터 북아메리카 전 지역에 프린지 축제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아시아에서는 1980년 홍콩에서 최초의 프린지 페스티벌이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매년 연극·무용·음악·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을 즐기는 방법

미술·독립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지향하는 예술가와 단체들이 모여 각 지역에서 프린지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거리 예술 축제인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올해로 6년째를 맞이했다. 시작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세워지면서 전당 권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5·18민주광장을 주무대로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펼쳐졌다. 이후로 지역 거리 예술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 문화 향유 기회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광주 민주화의 상징인 5·18민주광장을 시작으로 다섯 개 구에서 열 차례 펼쳐지는 ‘우리 동네 프린지’와 5·18민주광장에서 다섯 차례 펼쳐지는 ‘민주광장 프린지’ 두 개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별히 시민이 축제의 주인이 되는 시민 프린지 페스티벌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데 초점을 뒀다. 광장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광장으로 연결과 확대 재생산 해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우리 동네 프린지는 현재까지 7회가 진행됐다. 동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동네방네’, 양산마을공동체, 첨단전환마을 네트워크 등 마을공동체가 함께 참여했다. 앞으로도 문산마을공동체, 효덕마을 네트워크, 풍암마을공동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렇듯 이번 우리 동네프린지는 기존 방식인 행사 주최측이 공연 무대를 펼쳐 놓고 관객들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수동적 문화 향유자로서 참여를 바라는 방식은 아니다.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주민자치회 분들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해 즐기는 축제로 만들어 가고 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하는 축제를 지향한다. 친환경 퍼포먼스(줄임 퍼포먼스, 에너지 전환 체험, 되살림 시민예술학교)와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손수건 포스터 제작, 모두의 공유 버스 운영 등을 통해 친환경 축제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광주 정신인 공동체를 복원해 다함께 정성을 모으는 축제로 만든다는 취지로 ‘시민, 예술에 물들go’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광주의 대표적인 공연예술 축제로 공연예술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한 키워드로 ‘정체성’ 참여와 연대 ‘모심’ 확대를 지칭했다. 광주 정신인 민주·인권·평화·공동체 정신을 담아내고 시대정신인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하며 프린지 페스티벌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다.

올해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코로나 시기로 움츠러든 지역 공연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 거리 두기 및 격리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시민들이 예술로 치유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가까운 동네를 찾아 프린지를 함께 즐기는 것도 좋을 듯하다. 스탬프 투어를 통해 우리 동네 프린지 열 곳을 다 참여한 분들에게는 민주광장 프린지에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社說

우려 쏟아지는 민선 8기 광주시 조직개편안

문화와 관광 업무 이원화 등을 골자로 한 민선 8기 광주시의 첫 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 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설되는 ‘신활력 추진본부’의 업무가 비대하고, 문화정책의 비전과 목표가 모호하다면서 우려를 쏟아 내고 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그제 강경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을 추진할 ‘신활력 추진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심의하면서 “신설 조직의 비대화와 의회와의 소통 부족 등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다운 의원은 “시장이 시장 연설에서 (의회와) 투명한 정보공유를 천명한 것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신활력총괄관·관광도시·도시공원과 등을 둔 신활력추진본부에 업무가 집중되고 중복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박필순 의원은 “핵심 현안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비효율적인 조직 형태”라고 지적했고, 채은지 의원은 “업

무가 너무 비대해 리스크가 큰 만큼 조직 축소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조직 개편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여자치21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행정정책의 비전과 목표가 모호하다면서 우려를 쏟아 내고 있다. 지역문화교류추진재단도 “문화와 관광 업무 이원화, 문화관광체육실 축소 등 전제로 한 조직 개편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민선 8기 시의 정책과 행정 조직에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광주는 유·무형의 문화 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연계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만큼 문화와 관광 업무를 이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바꿔야 할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쇠신·비전 경쟁의 장으로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당권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른바 ‘여대명’(여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에 이를 무너뜨리려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 등의 견제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는 이재명(초선) 의원을 비롯해 재선 97그룹 강병원·강훈식·박용진·박주민 의원, 정세균 제 김민석(3선) 의원, 이낙연 제 설훈(5선) 의원, 청년 정치인 이동환 전 최고위원 등이 여덟 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모두 17명이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비경선을 통해 당 대표 후보자를 세 명으로, 최고위원 후보자는 여덟 명으로 압축하고 본경선에서 뽑아간다. 예비경선에서는 당 대표 선거의 경우 중앙위원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를, 최고위원은 중앙위원 100%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당권·최고위원 주자들은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지자체 장 등 400명으로 추산되는 중앙위원 공략

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호남 최고위원 단일 주자인 송갑석 의원(서구 갑)이 지도부에 진출해 민주당의 최대 정치 기반인 호남 민심의 창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결집을 통해 호남 정치 복원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창당 이래 최대’ 임을 강조하며 비전·정책 경쟁을 당부했다. 그러나 친명·비명 간 대립은 갈수록 격화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하고도 패인 분석과 성찰보다는 계파 갈등으로 시간을 보냈다.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과 지지자들의 시선이 급직 않은 이유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계파의 이해관계에 매달리기보다 당을 쇠신하고 정치를 개혁하며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당만의 가치와 비전, 시대정신을 제시해야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자폐증을 가진 여성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이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천재성을 가진 자폐증 환자 자폐증이라는 점 자체가 특이한 설정인 데다 극중 주인공의 뛰어난 연기, 감동을 주는 스토리로 안방을 휘어잡고 있다.

장애인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지금까지 적지 않았지만 이 드라마는 신드롬이 될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물론 인기의 비결은 재미와 작품성에 있지만, 무엇보다 드라마가 보는 이로 하여금 시종일관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는 점이다. 스토리 전개가 대립과 갈등보다 는 소통과 협업 과정에

은 있으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말과 뜻은 이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됐다.

우영우는 특정 분야에 천재성을 보이는 ‘고기능 자폐증’으로 IQ 164, 한 번 본 책은 사진 찍듯 머릿속에 기억하는 천재이다. 이 드라마와 가장 유사한 드라마와 영화로는 ‘굿 닥터’와 ‘레인맨’ ‘그것만이 내 세상’ 등이 있다. 정신 지체를 지니고 있지만 기억이나 음악 등 특정 분야에 굉장한 능력을 갖춘 ‘서버트 중추군’이 있는데, 영화 ‘레인맨’에서 터스틴 호프만이 연기한 주인공이 그렇다. 두꺼운 전화번호부를 한 번 보고 통째로 외워 버린다. 또 드라마 ‘굿 닥터’에서 주원이 열연한 천재 소아과 전문의,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에 나온 천재 피아니스트도 같은 부류이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을 다룬 작품은 그동안 꾸준히 나왔고, 그때마다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극중 주인공들과 달리 가족의 도움 없이는 일상 자체가 불가능한 장애인들이 너무 많다. 장애인을 가족같이 보듬을 수 있는 촘촘한 정책과 따뜻한 시선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채희중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政	논설실장 程厚棟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